

투데이 칼럼

성년의 날과 부부의 날

가정의 달인 5월에 의미 있는 날이 있으니 바로 '성년의 날'과 '부부의 날'이다. 성년의 날과 부부의 날은 매년 5월 21일이다.

일본은 성년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정도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미국은 친척들을 초대해 잔치를 벌이고 독특한 의식 행사를 치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성년관에서 전통 관례 복장을 갖춘 채 어른을 모셔놓고 중앙행사를 개최해왔고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인 행사를 가져왔다.

성인(成人)의 사전적 의미는 '나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성인이 되는 것을 기리는 날이 바로 '성년의 날'이다.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이 되면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국가적인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혼인할 수 있고 재산관리를 할 수 있다.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성인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일생에 한 번 맞는 성년의 날을 가장 기억에 남는 날로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부모는 성년을 맞는 자녀와 마주 앉아 이런 부모,

이런 자녀가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도 좋고, 또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부부의 날은 지난 2009년 12월 18일 '부부의 날 위원회'가 제출한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되면서 제정됐고, 지난 200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정해졌다. 앞서 부부의 날은 지난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경남 창원시의 권재도 목사 부부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정 목적은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 데 있다.

부부는 정으로 산다는 말이 있다. 한국인만큼 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은 흔치 않다. 정도 나름이겠지만 우리네 정은 워낙 깊고도 깊은 게 유별나다.

부부의 인연은 참으로 깊고도 깊다. 부처님께서는 '인연경'에서 "오백 겁의 인연이 있어야 웃기가 한

번 스치고, 일천 겁의 인연은 같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고, 삼천 겁이면 허룻밤을 함께 묵게 되고, 오천 겁이면 한동네에 살게 하며, 칠천 겁이면 한집에 태어나 살게 하고, 팔천 겁이 되어야 부부의 연이 맺어진다."고 했다. 1겁(劫)은 세상이 한번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후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즉, 몇 억만년의 시간이다. 그래서 부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이다. 그러나 이 부부관계를 새삼 정의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족의 실정은 어떨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혼율이 1위가 한국이다. 결혼 가정이 늘어나는 요즘 환혼이혼마저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인구 1천 명 당 이혼 건수가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이혼가정은 큰 폭으로 줄지 않고 있다. 숫자로만 본다면 부부의 3분의 1은 이혼을 하

는 셈이다.

이혼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지만 '성격 차이'가 44.5%로 절반에 육박한다. 그 배경엔 남녀 간 원초적인 '문화 차이'가 존재한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남성은 결혼을 '의의'로 생각하지만 여성은 '시작'으로 생각한다. 남편에게 결혼은 공들인 연애의 결과인 '종착지'인 데 반해 아내에게 더 큰 행복을 꿈꾸는 '출발지'인 것이다. 시작과 끝이 만났으니 순탄할 리 없다는 해석이다. 가정이 잘되고 화평해야 나라가 융성하고 평화로운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따라서 사회와 국가가 행복하려면 부부와 가정이 건전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부부 10개명을 만들어 실천해보는 것도 가정을 행복으로 이끄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부부 십계명은 "1. 두 사람이 동시에 화해지 마세요. 2.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품을 지르지 마세요. 3. 눈이 있어도 흙을 보지 말며 일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4.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5.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6.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7.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8.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9. 숨기지 마세요. 10.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이다.

고재홍  
수필가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칸 영화제 왔어요”



영화 '버닝'으로 제71회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이창동 감독, 배우 유아인, 스티븐 연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사진기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독자재언

다가오는 농번기, 농기계 교통사고 주의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특히 이맘철인 5월에는 교통사고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이에 따른 연령별 사망자는 50세 이상이 전체 90% 넘게 나타나고 그 중에서도 70세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고령자일수록 사망률이 높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아 운전 미숙으로 인한 전도·추락 등 단독사고 유형이 높고, 구체적인 사고 유형으로는 전도·전복·도로이탈·공작물 충돌 등이 있다.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는 별다른 안전장치 없는 농기계의 특성상 운전자

와 함께 동승자도 사망할 위험성이 높아 치사율이 일반차량에 비해 7배 이상 높다.

경찰에서는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 등을 방문해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교육, 야광 반사판 등을 부착해 주고 있으나 일몰 후에는 농기계 운행을 자제하고, 평소 농기계 후미에 반사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농기계에 대한 사용법 숙지와 농기계에 대한 점검과 정비, 음주 후 농기계 사용을 절대로 하지 않는 등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요구된다.

교통사고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영농철, 농기계 운행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교통사고가 없는 봄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세철 완주경찰서 용진파출소경감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군산에 대한 국가지원 시급

군산 GM이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뒤로하고 뒤안길로 사라졌다.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표현에 의미를 말할 이가 혹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딱하고도 불쌍한 책사라고 미련일 뿐이다. 정부가 한국 GM에 8천억 원을 지원하기에 앞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기본계약서를 체결할 모양이지만 거기 군산 GM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동안 어떻게 회랑의 불씨를 살펴보려는데 말해줬지만 그것은 결국 수해를 감추기 위한 코스프레였을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GM에 대한 정부와 산업은행의 행태에서도 볼 수 있는 바, 전북 지역이 차별 받고 있음은 확실하다. 저번에도 도민 대다수가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차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열 명이 일곱 명 꼴로 그런 정서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그 걸 목격했으니 도민들은 매우 참담한 기분이다. 전북도가 그동안 군산 GM을 위해 한 게 무엇이나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는 시점이다. 그래도 지금은 그것을 나중으로 미루고 국가의 군산 지원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다. 도지사가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확보를 위해 뛰었지만 한 번 더 뛰어야겠다.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되었다지만 도체가 믿을 수가 없다. 해결 요구는 화급을 다루는데 시간만 흘러가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이리다가 사후약방문이 될 지 모르겠다. 도지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은 이쪽의 입장을 더욱 뜨겁게 설득해야겠다. 국가 지원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군산 GM 공장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언급조차 생략된 마당이다. 정말이지 이런 차별 대응은 국토의 균형 발전론과 맞지 않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정서를 대변해야 한다. 빠른 추경 예산 확보가 군산 시민의 간절한 기대이다. 이번에는 군산시민에게 원가를 보여야 한다. 자칫했다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도 녹장이가 격정이다. 전북도는 제 몫을 찾기 위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북도는 도민의 정서가 어떠한지 헤아려야 한다. 추경 예산과 관련해 도지사와 고위 관계자들은 군산 시민에게 위기가 될만한 원가를 확실하게 안겨주어야 한다.

전북산 탄소제품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전북 산 탄소제품이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겠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키워온 탄소산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도내 중소 탄소기업들이 인프라 부족으로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탄소제품들이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시장 진출에도 탄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전북도가 열악한 탄소기업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것은 잘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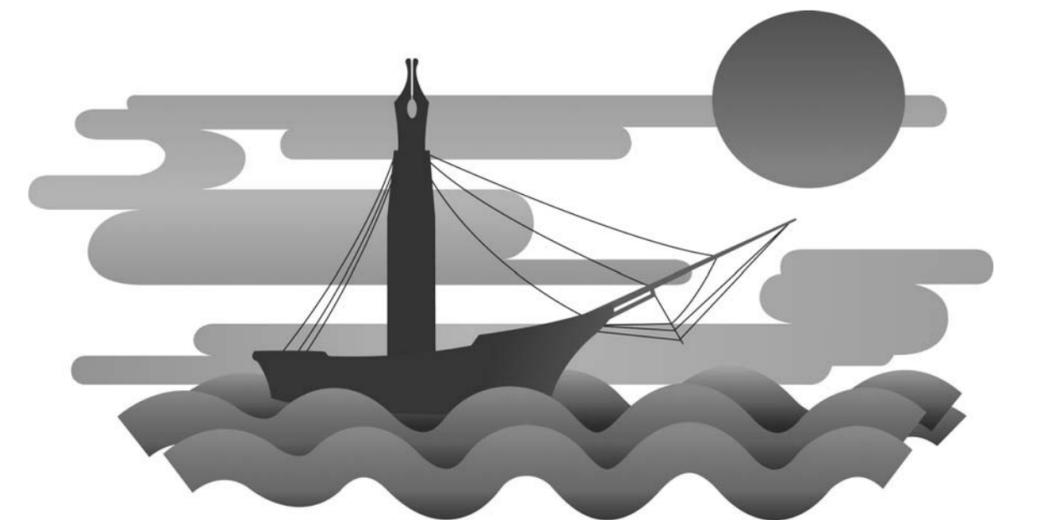
그동안 전북도는 탄소산업에 꾸준히 힘을 집중해왔다. 저번에 '2018년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한 방침을 밝힌 것도 바로 그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업들을 지원하는 가운데 시장을 개척하고 매출을 증대해 일자리 창출에도 성과를 내겠다는 '카본로드사업'도 그렇다. 그 사업 구상에서 큰 욕심이 없었진다고 말한 것은 그래서이다. 그래도 전북도는 작은 성과에 만족을 말해서는 안 된다. 작은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산업 단계에 입주할 기업 유치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

다.그러면 탄소산업단계의 위용이 더욱 달라지리라는 기대이다.

그렇다. 우리 지역의 탄소산업은 더욱 발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역 탄소산업의 영역을 계속 넓혀야 한다. 그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국내 탄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탄소제품들이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욕심이다. 그래서 전북도와 전주시는 '투 트랙' 육성 방침을 말했을 것이다. '산업용' 제품과 '생활용' 제품이 국민들 속으로 광범위하게 혜택을 주면서 먹여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글자 그대로 히트 상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겠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탄소 소재 및 부품 분야 육성에 힘을 실어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래도 아쉬운 부문은 있다. 기업군 형성 말이다. 그제 안되면 탄소제품 상용화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현재 전북 탄소 산업과 관련된 격려의 말을 하면서도 아직은 만족스럽다는 말을 삼가하는 이유이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할 일은 분명하다. 도내에서 생산한 탄소제품들이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더 많이 소비되도록 해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